

# 건설현장 찾아 근로자 폭염 대비 상황 점검

### 김관영 도지사, 폭염특보에 에코시티 근린생활시설 현장 방문... 야외 근로자 온열질환·중대재해 예방 만전 당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전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 보호 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 환경과 무더위쉼터 등을 직접 살폈다.

전북지치도는 6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 에코시티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비롯 폭염대비 안전관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야외 현장 근로자들은 폭염에 취약한 만큼 사업장 관리주체는 온열질환 근로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폭염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나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폭염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폭염 취약시간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해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물, 그늘, 휴식)를 적극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장 차원에서 폭염 심각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 전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6일 전주시 에코시티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비롯 폭염대비 안전관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단계 시 공사 시간 조정 및 근로자가 쉬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폭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현대3차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냉방시설 가동 상태를 살피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무더위 쉼터가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고 24시간 운영을 통해 폭염 시 더위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지속되는 폭염으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마을회관 4,850개소의 24시간 운영을 돕기 위해 이미 지급되고 있는 냉방비 2개월분 35만원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얼음 생수 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개 시·군에 총 8,4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기후 변화로 폭염 등 자연재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난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만이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며, "관계기관은 힘을 합쳐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도민들께서도 폭염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서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대이수목원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도청사 앞 광장에서 '나라꽃 무궁화 분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나라꽃 무궁화 분화 전시회' 개최

### 제79주년 광복절 맞아... 18일까지 도청사 앞 광장서

전북특별자치도 대이수목원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도청사 앞 광장에서 '나라꽃 무궁화 분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대이수목원에서 관리 중인 무궁화 대형분화 46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궁화는 '끝없이 피어나 지지 않는 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무궁화의 생태적 특성은 우리 민족의 근면

성과 강인함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인식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나라꽃 무궁화가 화려하게 피어난 모습을 감상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무궁화 품종개발과 육성에 더욱 힘써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위케이션 거점센터 5곳 추가... 위케이션 사업 '탄력'

### 최병관 행정부지사, 부안군 위케이션 거점센터 방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속 위케이션 사업 중요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위케이션 거점센터 외에 5곳을 추가로 조성해 전북형 위케이션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6일 부안군의 위케이션 거점센터(변산, 줄포만 노을빛 정원)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안전사항 준수와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위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기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 형태를 의미한다. 전북지치도는 기업의 업무변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위케이션으로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전북지치도는 지방소멸 기금을 통해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6일 부안군의 위케이션 거점센터(변산, 줄포만 노을빛 정원)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다.

남원(백두대간 생태공원), 순창(실린드, 12월 완료예정), 부안(변산해수욕장, 줄포만 노을빛 정원), 장수(외룡자연휴양림내) 위케이션 거점센터 등 5

개의 위케이션 거점센터를 추가 조성했다.

또한, 전북지치도는 올해 문체부 주관 위케이션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50백만원(프로그램 운영 200, 시설개선 150)을 추가 확보하고, 프로그램 운영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은 국내외 외국계 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동반 출장자, 관광 취약계층 등 참여자의 폭을 넓히고, 전국 최초로 위케이션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여 참가자와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위케이션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 유치에 준하는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위케이션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 전북자치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7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도 포함되며,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

다만, 30미터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 공간은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개정으로 인해 도내 금연 구역의 수는 기존 1,273곳에서 2,023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 구역 스티커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지역 언론, SNS를 통해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월러 도는 17일부터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형준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사회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 '여름 물놀이터' 오픈하우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본관 앞 주차장 일대에서 도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여름 물놀이터'를 오픈하우스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여름 휴양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놀이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워터 바운스 물놀이 공간과 스포츠 에어바운스 체험존, 포토 부스 등이 설치되어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주거 여행형 체험존 2개실을 개방해

임시 탈의실을 제공하고, 간호조무사와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명조끼, 튜브, 아쿠아슈즈 등 안전용품은 물론, 주기적인 물 교체와 수질 검사기 사용 등을 통해 방문자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